

7.13(수) 석간<인터넷 7.13(수) 06:00 이후>



보도자료(Press Release)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일자리 현장 지원단

❖인력수급정책과장 직무대리 황보국
사무관 박정웅

☎ 02-6902-8165, 010-9107-9159

❖일자리현장지원팀 팀장 손필훈
사무관 김초경
주무관 이대식

☎ 02-6902-8165, 010-3812-8906

▶ 2011. 7. 12(화) 배포
▶ 총 14 쪽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할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요”

- 고용증가에도 중소기업 인력난·구인난은 여전
- 하반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일자리 현장지원으로 인력난 완화 추진 -

- 올해 5월 취업자가 전년보다 355천명 증가하여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난·구인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한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으로 전국 9,725개 기업(6.20.기준)을 직접 방문 조사 했다.
- 그 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42.6%(4,115개 기업)에 이르고, 앞으로도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장 역시 40.0%(3,615개 기업)에 달한다고 밝혔다.
- * 인력사정에 대해 걱정(54.1%, 5,221개소), 부족(42.6%, 4,115개소), 과잉(3.3%, 317개소)의 순서로 응답 (총9,653개소)
- * 인력사정 전망(조사 익월)에 대해 걱정(57.0%, 5,152개소), 부족(40.0%, 3,615개소), 과잉(3.1%, 279개소)의 순서로 응답 (총9,046개소)
- 업종별로는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51.7%), 제조업(48.6%) 등이 인력부족이 심각했고, 금융 및 보험업(12.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3.1%)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1년 상반기 인력부족실태를 조사한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와 유사한 것이다.

<참고: '11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인력부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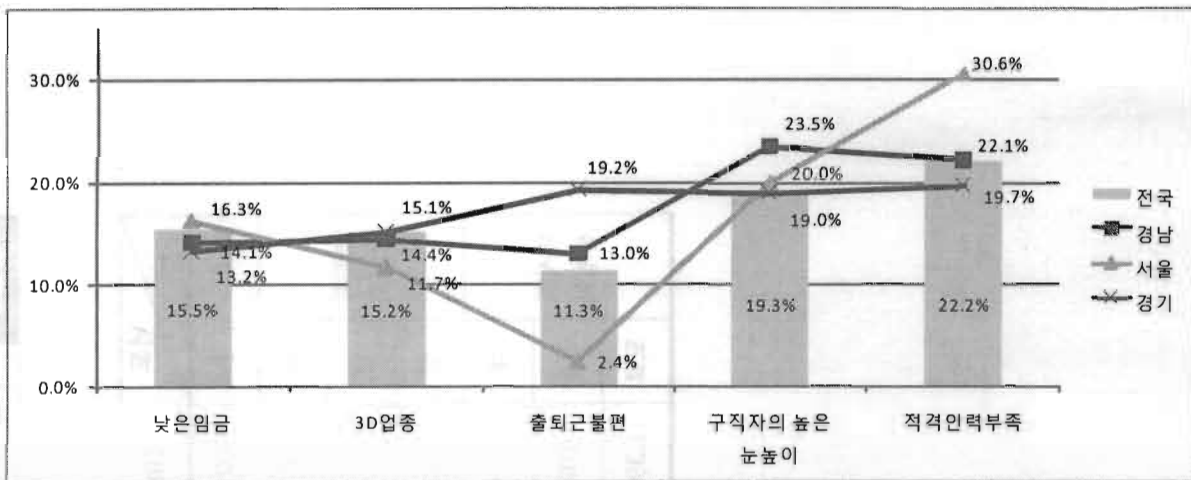
구분	인력부족률 상위 업종(3개)	인력부족률 하위 업종(3개)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5.6%), 제조업(4.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6%), 금융 및 보험업(0.9%), 부동산업 및 임대업(1.0%)

□ 인력난 못지 않게 구인난도 심각하여 대부분의 사업장(73.2%, 7,121개 기업)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인난의 원인은 적격인력 부족, 구직자 눈높이 문제, 낮은 임금·복지후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 서울 지역은 적격인력 부족이, 지방의 경우에는 교통불편 문제가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간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 구인난의 원인 비교>



□ 한편, 조사대상 사업장의 2/3는 국가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을 이용하지만, 상당 수(32.8%) 사업장은 구인시 워크넷 보다는 민간취업기관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방법에 있어, 50인미만 사업장은 주로 자체 홈페이지(38.7%)를 활용하고 있고, 300인이상 사업장은 가족·친지 등의 추천(27.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인력채용 방식이 좀더 개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부는 일자리 현장 지원 활동에서 나타난 구인난과 일자리창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예산 22억원을 긴급 지원(14개 사업, 붙임 1 참조)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760여개의 지역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을 통해 발굴된 중점사업장 일자리를 대상으로 8월까지 「중소기업 만남의 날」 개최 특별 기간도 운영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의 갑갑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 중소기업 만남의 날: 고용노동부, 지방중소기업청, 교육청, 경제단체 등과 공동 개최, 7월에 전국 67개 고용센터 230회 등 8월까지 개최

○ 또한, 고용센터 취업알선 기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취업알선 내실화 방안」(6.27 시행, 붙임 2 참조)을 확정·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현장 지원활동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하반기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은 우선 상반기에 파악된 8,498건 중 해결을 위해 노력중인 4,055건의 애로사항 해소와 16,488명 중 아직 채워지지 않은 8,227개의 일자리에 대한 구인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상반기에는 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하는 데 집중했으나 하반기에는 업종별 협회·학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종·지역·기업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고용부 「일자리 현장 지원반」은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유능하고 경험많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인지원이 필요하거나 일자리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서 언제든지 무료로 현장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8월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장지원 상담창구에서도 신청 가능)

<붙임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현황

자치 단체	사업명	권소사업 기관	일자리 (취업) 목표 (명)	비고
계	14건		763	
부산	부산청년취업활성화 사업	부산경제 진흥원	100	
대구 서구	지역섬유산업특화현장 기능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중계센터 운영 및 훈련사업	한국섬유 개발연구원	120	
광주 광산구	금형산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광주인력 개발원	96	
광주 동구	광산업 지원 산학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조선이공 대학	48	
경기 화성시	아동복지상담사 양성특화사업	화성 YMCA	28	
경기 안성시	경기지역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국립한경 대학교	40	
전북 김제시	대체에너지 기능인력 양성사업	벽성대학	27	
전북 김제시	마필관리,생산전문인력 및 마필관련 산업취업인력 양성사업	전주기전 대학	20	
전북 김제시	골프캐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한국폴리텍 V 대학김제캠 퍼스	30	
전남 목포시	조선설계 및 생산관리인력 양성사업	목포과학 대학 산학협력단	25	
전남 순천시	순천만권 저소득층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순천,광양상공 회의소 등	50	
경북 경산시	경산산업단지 취업알선강화 및 교통난 해소사업	한국노총 경산지부	120	
경남 창원시	구조조정퇴직자 재취업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경남여성발전 단체연합	35	
진주시	기술경영 보조인력 양성사업	경상대학교	2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유형

- ① 교통불편으로 인력채용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교통난을 해소

◇ 경산산업단지 취업센터 설치 및 단지 내 순환 버스 이용으로 구인·구직자의 접근성 및 취업알선 기능 강화로 인력난 해소
- 취업목표: 120명

- ②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

◇ 대구지역의 대표업종인 섬유업종의 인력난 등 미스매치 해소,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지원, 취업 중계센터 등 운영
- 직업훈련 160명, 취업목표 120명
◇ 전라남도 순천시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 계층 취업지원
- 전라남도 순천만권 저소득층 및 장애우에 대한 취업지원
- 훈련인원 60명, 취업목표 50명

- ③ 지역의 대표적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

◇ 금형산업은 광주광역시 지역전략산업으로 매년 400여명의 신규인력필요,
- 금형설계 및 제작 등 훈련기능인력 양성
- 훈련인원 120명, 취업목표 96명
◇ 광산업은 광주지역의 지역전략산업으로 매년 400여명의 신규인력 필요
- 훈련인원 60명, 취업목표 48명

④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

- ◇ 기업맞춤형 물류관련 인력양성 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주요내용으로, 물류인력이 매우 필요한 경기지역의 특성반영
 - 수도권 최대 내륙 물류지역인 군포·의왕, 안양시·수원·오산·용인·안산 등
 - 훈련인원 80명, 취업목표 40명
- ◇ 조선업의 구인난과 선박설계 프로그램 변경 등으로 설계인력 부족에 대비한 전라남도 목포지역의 인력양성
 - 전남·서남권의 조선업종 구인인원은 전체 구인인원의 48% 차지, 조선업의 용접·도장·설계 등 전 분야 구인난
 - 훈련인원 30명, 취업목표 25명

⑤ 구조조정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지원

- ◇ 대림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구조조정 퇴직자에 대한 실업대책 및 전직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
 - 여성대상 직업훈련을 통해 창업, 강사활동 등 일자리제공
 - 훈련 인원 50명, 취업목표 35명

취업알선 내실화에 따른 변경 사항

구분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구직 신청	○ 실업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방문신청이 다수('10년, 77%)	○ 인터넷 구직등록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센터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 - 워크넷 활용 교육 강화 병행
구인 구직 인증	○ 구인·구직 정보의 완성도와 관계없이 인증 가능	○ 구인·구직 정보 완성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보완하여 인증
구직자 요청 알선	○ 구직자가 직접 구인업체를 찾은 경우에도 센터에 알선 요청('10년, 350만 여건)	○ 구직자의 인터넷을 통한 알선 요청 기능은 폐지 ➔ 구직자가 직접 구인자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입사지원
구인자 요청 알선	○ 구인자가 직접 구직자를 찾은 경우에도 센터에 알선 요청('10년, 200만 여건)	○ 구인자의 인터넷을 통한 알선 요청 기능은 폐지 ➔ 구인자가 SMS와 이메일을 통해 직접 구직자에게 연락
구직자 알선	○ 구인자를 중심으로 구인 인증과 동시에 구직자를 검색하여 구인자에게 알선 - 구직자 의사 확인 과정 취약	○ 방문신청 기능을 추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방문 구직자 대상으로 상담 알선
채용 지원	○ 구인자의 인터넷과 전화 알선 요청에 따라 센터에서 구직자를 검색하여 알선	○ 구인자가 스스로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만남의 날 등 행사를 통해 지원

중점지원사업장의 구인관련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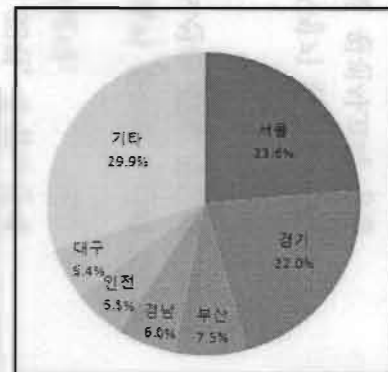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을 위한 중점지원사업장 현장방문(9,725개소 6.20.기준)에서 수집된 구인관련 자료를 분석한 것임

1 분석 개요

○ (총괄)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을 위한 중점지원사업장(약 1만개소) 중 현장방문 사업장은 총 9,725개소(11.6.2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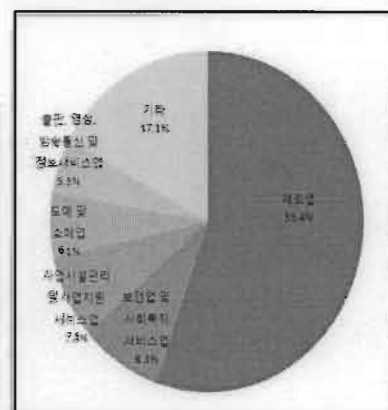
○ (지역)

지역 (광역시도)	합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인천	기타
사업장수	9,725	2,299	2,138	725	588	537	2,912
(비율)	(100.0%)	(23.6%)	(22.0%)	(7.5%)	(6.0%)	(5.5%)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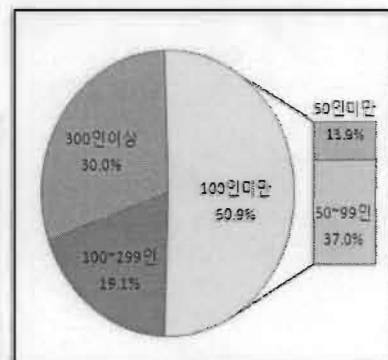
○ (업종)

업종 (대분류)	합계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기타
사업장수	9,725	5,389	811	761	592	511	1,661
(비율)	(100.0%)	(55.4%)	(8.3%)	(7.8%)	(6.1%)	(5.3%)	(17.1%)



○ (사업장 규모)

규모	합계	100인미만	50인미만	100~299인	300인이상
사업장수	9,725	4,950	1,355	1,861	2,914
(비율)	(100.0%)	(50.9%)	(13.9%)	(19.1%)	(30.0%)



① 인력사정

○ (총괄) 중점지원사업장 확인 결과, 전반적인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

- * 인력사정에 대해 걱정(54.1%, 5,221개소), 부족(42.6%, 4,115개소), 과잉(3.3%, 317개소)의 순서로 응답 (총9,653개소)
- * 인력사정 전망(조사 익월)에 대해 걱정(57.0%, 5,152개소), 부족(40.0%, 3,615개소), 과잉(3.1%, 279개소)의 순서로 응답 (총9,046개소)

○ (업종)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의 인력부족이 특히 심각

- 금융 및 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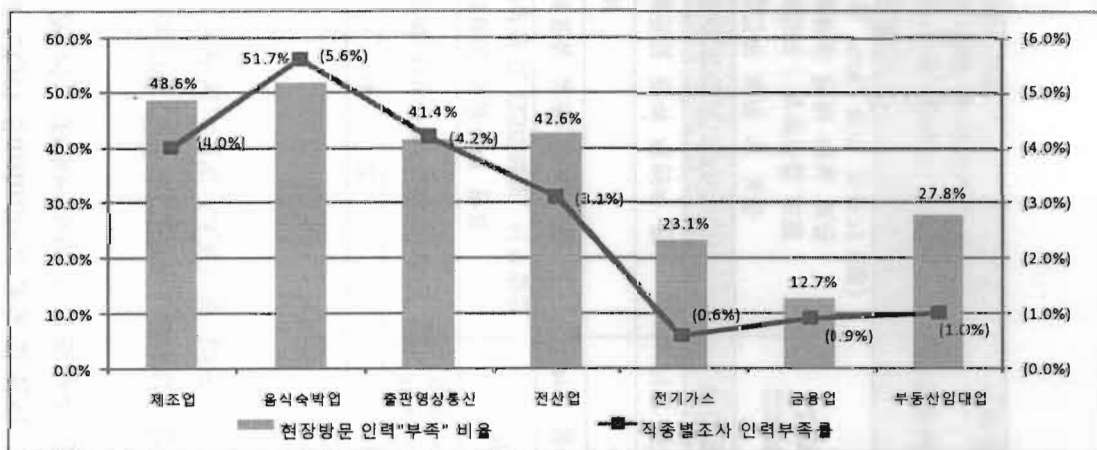
- * 인력사정 “부족” 응답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51.7%, 78개소), 제조업(48.6%, 2602개소),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1.4%, 210개소) 순
- * 광업(8.3%, 1개소)과 금융 및 보험업(12.7%, 19개소),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23.1%, 6개소), 부동산업 및 임대업(27.8%, 22개소)은 낮음

[참고]

◆ (업종) 현장지원 활동 조사결과 인력부족 업종은 '11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 인력부족률과 유사(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100)

- * (상위<3개>) 숙박 및 음식점업(5.6%), 제조업(4.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2%)
- * (하위<3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0.6%), 금융 및 보험업(0.9%), 부동산업 및 임대업(1.0%)

< 업종별 인력사정(부족비율)과 인력부족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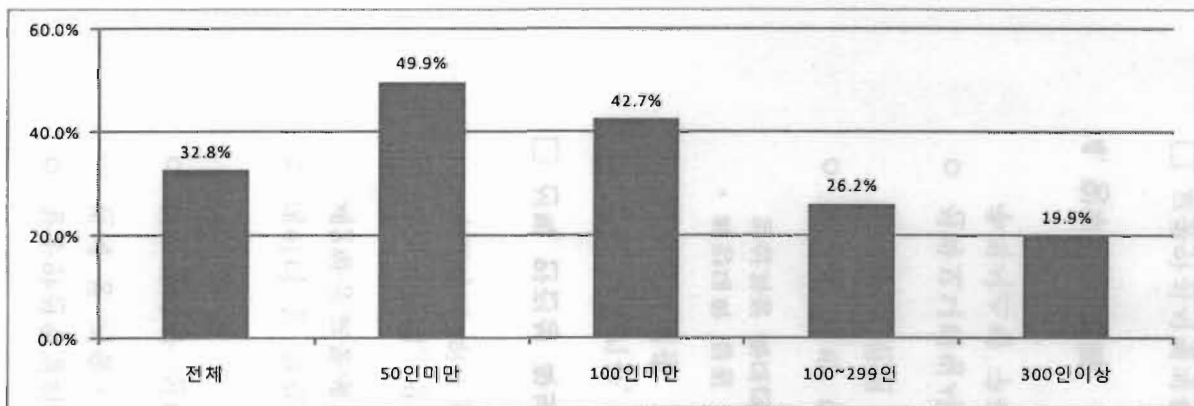


② 구인시 워크넷 활용 여부 및 미활용하는 경우 주된 채용방법

〈1〉 구인시 워크넷 활용 여부 및 미활용 이유

- (총괄) 전체 현장방문 사업장(9,725개소) 중 구인시 워크넷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약 1/3을 차지(32.8%, 3,185개소)
 - (지역) 서울(51.7%, 1,188개소)지역 사업장이 지방보다 워크넷을 미활용
* 대구(17.5%, 92개소), 경남(18.0%, 106개소), 충남(19.4%, 63개소)은 낮게 나타남
 - (업종) 제조업(22.9%, 1,234개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9.3%, 223개소), 부동산업 및 임대업(30.4%, 24개소)은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낮아 워크넷 활용이 많은 편
* <워크넷 미활용 상위 3개 업종> 금융 및 보험업(82.8%, 125개소),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70.4%, 19개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0.0%, 7개소) 순
 - (사업장 규모)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워크넷을 잘 사용하지 않아 중소 사업장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 사업장 규모별 워크넷 미활용률 >



- (워크넷 미활용 이유) 워크넷을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시스템의 불편함 뿐 아니라 구직자 pool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
 - ▲ (워크넷 시스템 요인) 이력서 제출여부 즉시 확인 곤란, 민간취업기관보다 복잡한 등록절차, 긴급한 채용 곤란 등
 - ▲ (구직자 요인) 구직자의 질이 낮아 IT개발자, 특수전문직 경력자 및 간호사 등 전문(기술)인력 구인 어려움, 실업급여 수급 구직자의 형식적 구직활동
 - ▲ (기타) 워크넷의 낮은 인지도

〈2〉 구인시 워크넷 미활용하는 경우 주된 채용방법

- (총괄) 워크넷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민간취업기관(38.5%, 1,562개소), 일간지·무가지 등 대중매체(22.3%, 906개소), 자체 홈페이지(21.7%, 880개소), 가족·친지 등 추천(17.5%, 709개소) 순으로 활용

* 채용방법은 복수응답이 가능하고, 사업장당 1.3개를 선택

- (지역) 구인시 워크넷 미활용 사업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37.3%, 1,188개소)은 민간취업기관(50.1%, 756개소)으로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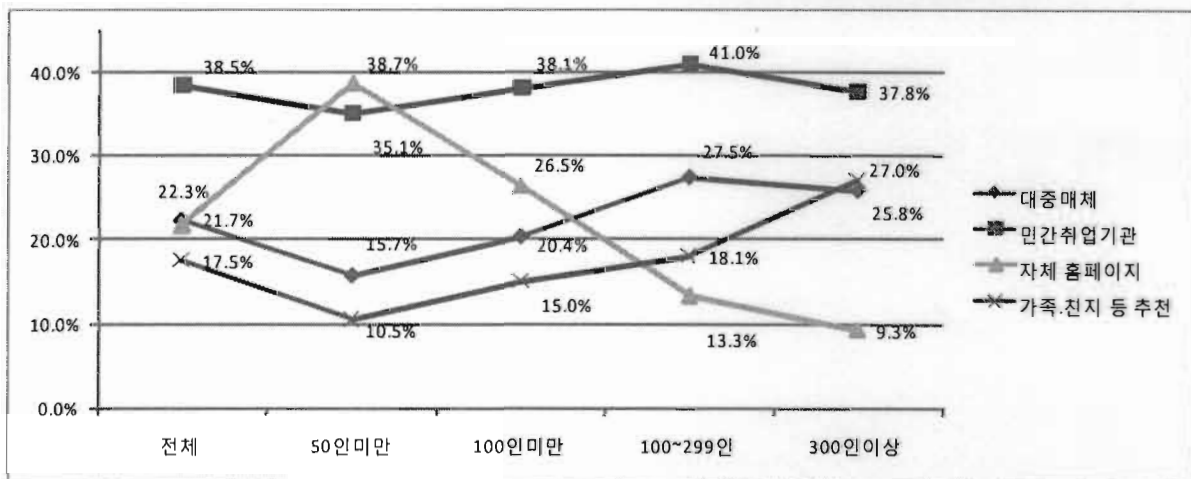
- 경북은 자체 홈페이지(38개소), 전남은 가족·친지 등 추천(42개소)이 많음

- (업종) 제조업(1,234개소, 구인시 워크넷 미활용 사업장의 38.7% 비중)은 절반 가까이 민간취업기관(613개소)을 이용하고, 그 외 대중매체(369개소), 가족·친지 등 추천(291개소), 자체 홈페이지(276개소)의 순으로 이용

- (사업장 규모) 민간취업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

- 300인이상 대기업에서 가족·친지 등 추천에 의한 경우가 높은 반면, 50인미만은 자체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 채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사업장 규모별 워크넷 미활용하는 경우 주된 채용방법 비율 >



[시사점]

- ◆ 워크넷보다 자체 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하는 50인미만 사업장의 구인수요를 워크넷으로 흡수할 필요
- ◆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경우 채용절차가 투명화될 경우 워크넷 등 이용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최근 6개월 간 채용/이직 현황

○ (총괄) 최근 6개월간 채용·이직 분석 결과, 대부분이 주로 이직자를 충원하는 목적으로 채용

* 전체 현장방문 사업장(9,725개소) 중 최근 6개월 간 채용자가 있는 사업장은 93.0%(9,044개소)이고, 최근 6개월 간 이직자가 있는 사업장은 93.0%(9,037개소)로 거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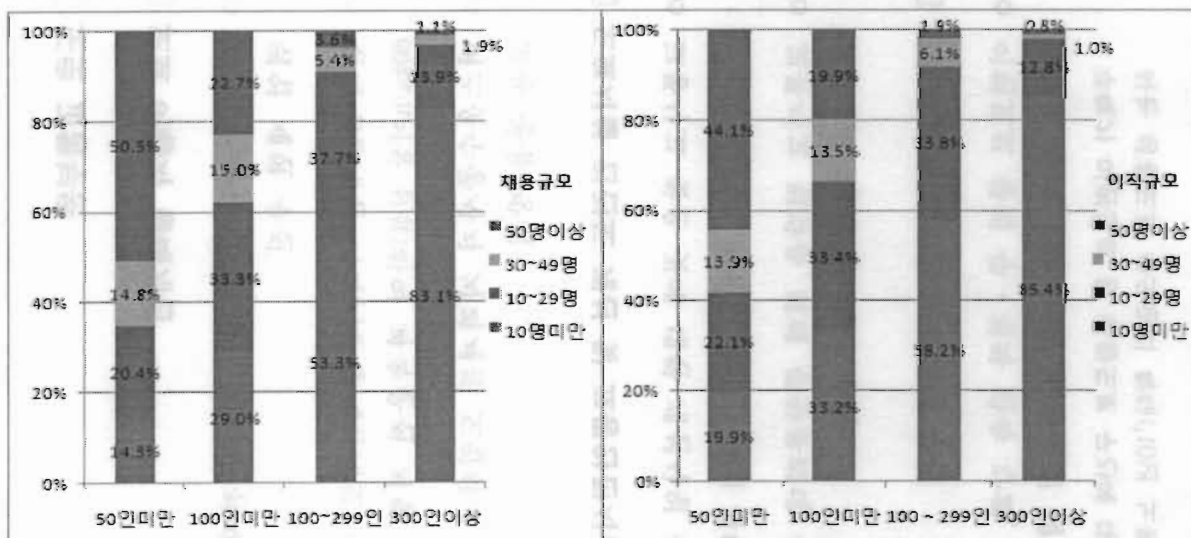
○ (사업장 규모)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채용 및 이직인원은 작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채용 및 이직인원이 커져 고용변동이 극심

- 50인미만 사업장은 최근 6개월간 50명이상 채용/이직한 사업장의 비율*이 각각 50.5%, 44.1%에 달하는 등 입·이직이 빈번

- 300인이상 사업장은 10명미만 채용/이직한 사업장이 각각 83.1%, 85.4%를 차지

* 조사대상 300인이상 사업장 중 50명이상 채용한 사업장은 1.1%, 50명이상 이직한 사업장은 0.8%에 불과

< 사업장 규모별 최근 6개월간 채용자/이직자 규모의 비율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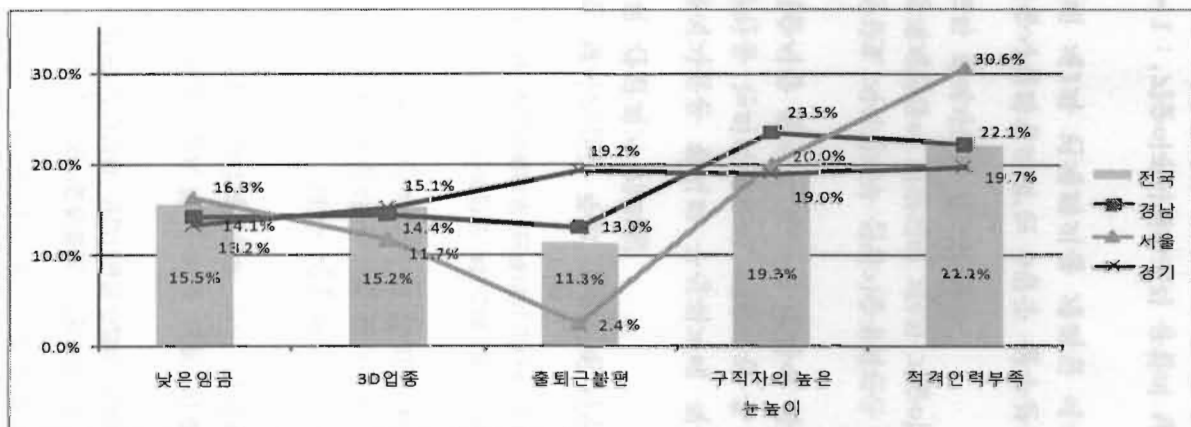
◆ 소규모 사업장(특히 50인미만)의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제도 필요

4 인력채용(구인) 및 인력운용(이직) 사항

<1> 구인난 여부 및 이유

- (총괄) 전체적으로 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데, 이는 주로 기업측 요인(임금·근로환경 등) 뿐 아니라 인력공급측 요인(적격인력 부족 등)에 기인
 - 현장방문 사업장(9,725개소) 중 구인난을 겪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73.2%, 7,121개소)
 - * 구인난이 없는 사업장(26.4%, 2,568개소), 무응답(0.4%, 36개소)
 - 구인난 이유*는 적격인력 부족(22.2%, 2,497개소), 구직자의 높은 눈높이(19.3%, 2,180개소), 낮은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15.5%, 1,748개소), 근로환경 열악(15.2%, 1,713개소), 출퇴근 불편(11.3%, 1,278개소), 기타(16.4%)의 순
 - * 구인난 이유는 복수응답이 가능하고, 사업장당 1.6개를 선택
- (지역) 전체적인 구인난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66.8%, 1,536개소)·경북(67.8%, 286개소)·대전(68.2%, 178개소)의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덜 하고, 경남(82.5%,)·충북(80.3%)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
 - 서울의 구인난은 적격 구직자 부족(30.6%, 717개소)이 가장 주요한 원인
 - 반면, 기타 지역은 임금 및 복지 수준, 열악한 근로환경, 교통불편 등 기업측 요인과 구직자들의 눈높이 등이 주요 원인

< 지역별 구인난의 원인 비교 >



[시사점]

◆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역별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

- 서울 지역은 적합한 구직자 pool 확보, 기타 지역은 근로조건 개선, 교통불편 해소 등이 병행하여 지원될 필요
- 아울러, 구직자의 높은 눈높이 해소를 위한 홍보도 지속 추진

〈2〉 이직자 자주 발생하는지 여부 및 이유

○ (총괄) 전체 현장방문 사업장(9,725개소) 중 약 절반은 이직자가 자주 발생(47.6%, 4,625개소)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이직자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 영세기업의 이직 문제가 더 심각함을 시사

기업 규모	소계	50인 미만	50~100인	100~300인	300인 이상
사업장 수 (개소)	5,064	603	1,772	921	1,768
비율(%)	-	44.5	49.3	49.5	60.7

○ (이직사유) 이직자가 자주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낮은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과 열악한 근로환경의 문제로 지적

< 주된 이직 사유* >

이직 사유	소계	낮은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	근로환경 열악	일자리 인식변화	출퇴근 불편	불안정한 조직 미래	기타
사업장 수 (개소)	4,625	1,740	1,480	971	695	264	1,592
비율(%)	100.0	25.8	22.0	14.4	10.3	3.9	23.6

* 이직자가 자주 발생 이유는 복수응답이 가능하고, 사업장당 1.5개를 선택

◆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수집된 구인정보는 1차적으로 지방관서에서 구인수요 파악 및 채용지원에 활용 중

◆ 전체 조사내용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는 고용정책 분야 정책 참고 자료로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에 활용